

# 일본 경제 동향\_2015년 8월

## (2015년 일본의 경제재정백서)

### < 목 차 >

<b>I. 일본 경제 지표</b>	<b>1</b>
<b>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</b>	<b>2</b>
1.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 지속	2
2. 무역적자 다시 확대	6
3. 엔저약화·주가하락·금리하락	9
4.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	11
<b>III. 일본의 주요 정책</b>	<b>12</b>
1. 2015년 일본의 경제재정백서	12
2. 대폭 강화된 에너지절약 대책	15
<b>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</b>	<b>17</b>
1. 대일무역적자 2개월 연속 확대	17
2. 일본인 직접투자 급증 반전	20
<b>V. 참고 자료</b>	<b>21</b>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	21
2. 주요 경제 일정	23

## I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	2013	2014	2014			2015				
			2/4	3/4	4/4	1/4	2/4	5월	6월	7월
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=100)	-	-	-	-	-	-	-	111.3	112.3	-
GDP증가율(연율,%)	1.6	△0.1	△7.5	△1.3	1.4	4.5	-1.6(p)	-	-	-
국내투자 (조엔)	민간설비투자	66.0	69.5	16.3	17.7	16.2	20.4	16.3	-	-
	공공투자	23.0	24.5	4.2	5.2	7.3	7.2	4.7	-	-
해외직접투자(조엔)		13.2	12.6	2.0	2.1	4.9	3.5	3.7	2.1	0.6
소비자물가	전기비	0.4	2.6	2.3	0.3	△0.1	△0.3	0.2	0.2	0.0
상승율(%)	전년동기비	0.4	2.6	3.3	3.2	2.7	2.1	0.2	0.1	0.1
실업율(%)		4.0	3.6	3.6	3.6	3.5	3.5	3.3	3.3	3.4
수출(조엔)		69.8	73.1	17.6	18.3	19.8	18.9	18.8	5.7	6.5
수입(조엔)		81.3	85.9	20.2	21.2	22.1	20.4	19.1	6.0	6.6
무역수지(조엔)		△11.5	△12.8	△2.6	△2.9	△2.3	△1.4	△0.3	△0.2	△0.1
경상수지(조엔)		3.3	2.6	0.3	1.7	1.4	4.2	3.8	1.9	0.6
환율	달러	97.7	105.8	102.1	104.0	114.3	119.1	121.4	120.7	123.8
	원화(100엔)	1,123	996	1,008.2	987.3	950	923.3	904.7	905	899
금리(10년물,%)		0.72	0.55	0.60	0.53	0.44	0.34	0.40	0.41	0.47
주가(닛케이)		13,651	15,460	14,655	15,562	16,660	18,226	20,058	19,974	20,404

주: (p)는 1차 속보치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### ☐ (경기판단) 경기회복세 주춤

- ‘15.6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2.3으로 전월비 1.0p 상승

### ☐ (소비자물가) 소비자물가 상승세 중단

- ‘15.6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.0%

### ☐ (무역수지) 무역수지 2,681억 엔 적자로 전월비 적자폭 확대

- ‘15.7월 수출은 6조 6,637억 엔, 수입은 6조 9,318억 엔

### ☐ (환율) 엔저 약화

- ‘15.7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3.2 엔으로 전월비 0.5% 엔고

\* ‘15.7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27원으로 전월비 3.1% 엔고·원저

## 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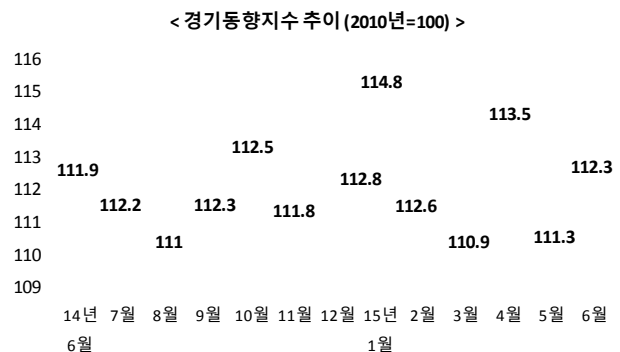
### 1.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 지속

#### □ (경기기조 판단)

- 기업수익의 호조와 고용소득 환경의 계속적인 개선 등으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

- ‘15.6월 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)가 112.3으로 2개월 만에 상승

- 경기동향지수 관련 11개 지표 중, 내구소비재 출하와 상업판매, 생산지수 등 7개 지수가 플러스를 기록



자료 : 내각부

- 다만, 일본 내각부는 중국경제의 감속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함
- 그러면서도, 기업수익이 과거 최고수준이며 고용소득 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어, 임금인상 확산 → 소비 개선에 의한 이제까지의 경기회복 시나리오를 유지

#### □ (전 망)

- ‘15.2분기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,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민·관의 공통된 전망
- 수개월 앞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전월비 1.2p 상승, 4개월 연속 상승
- 다만, 중국경제의 감속과 식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심리 악화가 경기회복 시나리오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음

## <GDP>

### □ '15.2분기 실질 GDP, 3분기만에 -1.6% 마이너스 성장

-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'15.2분기 GDP 속보치에 의하면,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기준으로 전기비 0.4% 감소, 연율 환산으로는 1.6% 감소
- 이는 3분기만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1분기 4.5%의 플러스 성장에서 크게 반전된 것인데, GDP의 60%를 점하는 개인소비와 對 중국 수출의 부진이 주된 요인
-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내수 -0.1%, 외수 -0.3%로 모두 마이너스
  - '15.2분기 소비는 전기의 0.3%에서 -0.8%로 4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
    - 엔저를 배경으로 식료품 등의 가격인상이 계속된 한편, 임금이 물가상승에 못 미친데 따른 소비자 심리의 냉각과 함께 6월의 기후불순도 소비부진에 일조
  - 설비투자는 0.1% 감소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, 생산 활동의 회복세가 더디고 설비투자의욕이 확대되지 못한데 따른 것임
  - 주택투자는 1.9% 증가로 2분기 연속 증가, 공공투자는 2.6% 증가
  - 수출은 4.4% 감소, 수입은 2.6% 감소
    - 중국을 비롯하여 해외경제의 감속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등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고 유가하락으로 수입량은 감소했으나 성장률에 대한 외수기여도는 마이너스
- 한편, 일본의 10개 민간싱크탱크에 의하면, 3분기에는 실질경제성장율이 연율 1.9% 증가, 경기는 후퇴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

### 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3	2014	2014				2015	
		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	1-3월	4-6월(p)
전기비			1.1	△1.9	△0.3	<b>0.3</b>	<b>1.1</b>	<b>△0.4</b>
<b>전기비연율</b>	<b>1.6</b>	<b>△0.1</b>	<b>4.5</b>	<b>△7.5</b>	<b>△1.3</b>	<b>1.4</b>	<b>4.5</b>	<b>△1.6</b>
전년동기비			2.4	△0.4	△1.4	△1.0	△0.8	0.7

자료: 내각부, (p)는 1차 속보치

## <국내 투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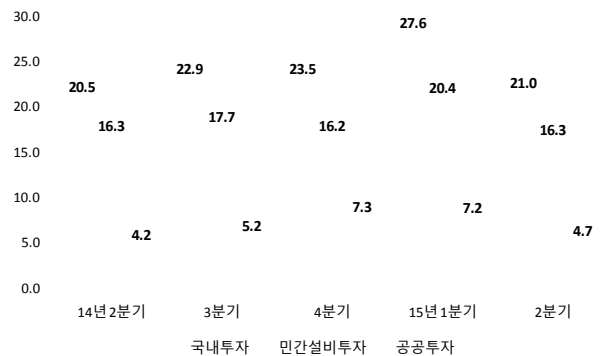
### □ ‘15.2분기 국내투자 증가세 유지

- ‘15.2분기 국내투자(민간설비투자+ 공공투자)는 전기비 실질 0.6% 증가, 명목기준으로는 23.9% 감소한 21.0조엔

### □ (민간설비투자)

- ‘15.2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0.1% 감소한 16.3조 엔, 국내 투자의 77.4%를 차지
- 일본은행 단관(단기관측), 법인기업예측조사 등에 의하면 기업수익의 호조와 투자마인드 개선이 투자계획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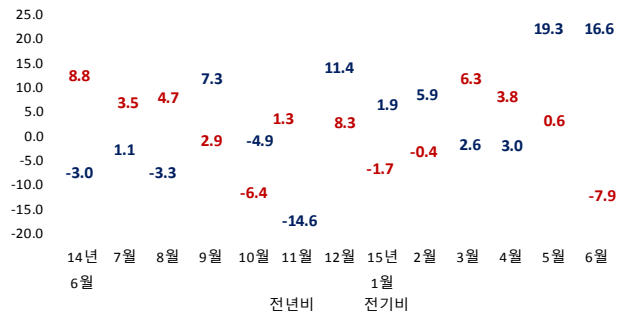
<국내투자 추이 (조 엔)>



자료 : 내각부

- 다만, ‘15.6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(선박,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)은 전월비 7.9% 감소
- 엔저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기업의 유턴도 국내투자가 증가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

<기계수주 증가율 추이 (%)>



자료 : 경산성, 내각부

### □ (공공투자)

- ‘15.2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34.7% 감소한 4.7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2.6%를 차지
- ‘15.2분기에는 공공투자의 증가율이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국내설비투자 증가에 기여했으나, 6월의 공공공사 수주액과 7월의 공공공사 청부 금액이 줄고 있어(각각 전년동월비 4.2% 감소, 10.1% 감소) 앞으로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

## <소비자물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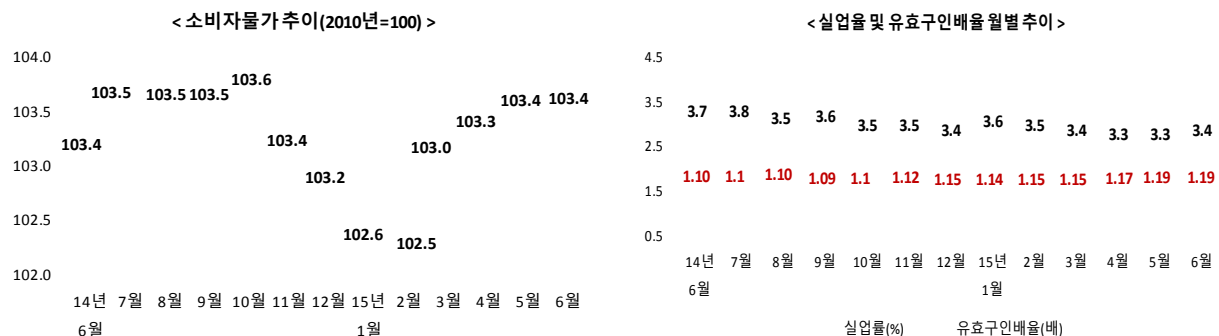
### □ '15.6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중단

- '15.6월 소비자물가지수(생선·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는 전월과 같은 103.4
  - 전년 동월 대비로는 0.1% 상승, 2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감
  - 엔저 등에 의한 식료품(생선·식품 제외)가격 상승 외에, 내구재의 가격과 숙박료 등이 인상된 반면, 유가의 영향으로 전기료, 도시가스,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은 하락
- 앞으로도 당분간은 엔저 영향에 의한 상승압력과 에너지가격의 하락압력에 의해 물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

## <실업률>

### □ 5개월 만에 실업률 상승

- '15.6월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.1%p 높은 3.4%로 5개월 만에 상승
- 실업자 수는 전월보다 4만 명이 늘어났으나, 일본 총무성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점을 들어 고용사정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
  - 15-64세의 취업률은 73.5%,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34만 명이 증가한 6,391만 명, 특히 여성의 취업자 수가 25만 명이 증가한 2,772만 명으로 1953년 이후 최대 규모
- '15.6월 유효구인배율도 전월과 같은 1.19배
  - 건설업과接客, 간병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유효구인배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



자료 : 총무성

자료 : 후생노동성

## 2. 무역적자 다시 확대

### □ (중 합) 4개월 연속 무역적자

- ‘15.7월 무역수지는 전월보다 1,976억 엔 늘어난 2,681억 엔 적자로 4개월 연속 무역적자
  - 수입증가폭이 수출증가폭보다 컸던데 따른 것임
  -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,118억 엔에서 4,729억 엔으로 확대,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5,788억 엔에서 6,469억 엔으로 확대
  - 전년 동월비로는 유가하락 등을 배경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
- 앞으로도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대폭적인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

< 2015년 7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5.6월			2015.7월			2015.1-7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수 출	6.5	9.5	13.3	6.7	7.6	2.4	44.5	8.0
수 입	6.6	-2.9	10.4	6.9	-3.2	5.4	46.4	-6.9
수 지	-0.1	-91.7	-68.2	-0.3	-72.3	282.9	-2.0	-77.0

자료 : 재무성

### □ (수 출) ‘15.7월 수출, 금액·물량 모두 전월대비 증가

- ‘15.7월 수출은 6조 6,637억 엔으로 전월비 2.4% 증가
  - 전년 동월대비로는 7.6% 증가
  - 수출물량도 전월비 3.0% 증가, 전년 동월대비로는 0.7% 감소
- 앞으로 미국과 유럽경제의 호조와 함께 엔저기조 정착으로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-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자동차부품, 철강, 원동기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, 자동차부품과 철강의 순위 바뀜이 있는 가운데, 5대 품목 모두 전월비 수출이 증가
-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전월비 9.8%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원동기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철강, 자동차 순

< 2015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5.6월			2015.7월			2015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자동차	10,762	16.9	41.4	10,906	9.6	<b>1.3</b>	67331	9.6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334	14.9	4.5	3,426	9.0	<b>2.8</b>	22711	13.2
3	자동차부품	2,887	2.4	13.8	3,169	3.4	<b>9.8</b>	20300	2.5
4	철강	3,063	-8.0	1.1	3,113	0.0	<b>1.6</b>	22659	0.6
5	원동기	2,148	3.7	11.1	2,319	10.6	<b>8.0</b>	15524	6.9

자료 : 재무성

- 주요 수출상대 지역·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증가
- 對 EU 수출 증가폭이 7.0%로 가장 크고, 이어 미국, 중국, ASEAN, 대만, 순으로 수출 증가폭이 큼
- 유일하게 對 한국 수출만이 2.4% 감소

< 2015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5.6월			2015.7월			2015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미국	13,025	17.6	19.9	13,408	18.8	<b>2.9</b>	88774	16.9
2	중국	11,602	5.9	4.3	11,797	4.2	<b>1.7</b>	76528	2.5
3	ASEAN	9,718	7.8	11.0	9,867	6.1	<b>1.5</b>	68526	10.2
4	EU	6,655	10.8	10.5	7,118	10.0	<b>7.0</b>	46012	10.4
5	한국	4,624	9.5	10.5	4,512	3.1	<b>-2.4</b>	32,290	4.3
6	대만	4,021	14.8	8.6	4,058	10.5	<b>0.9</b>	26,314	6.9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'15.7월 수입도 금액·물량 모두 증가

- '15.7월 수입은 6조 9,318억 엔으로 전월비 5.4% 증가
  - 전년 동월비로는 3.2% 감소
  - 수입물량도 전월비 4.5% 증가, 전년 동월비로는 2.9% 감소
- 앞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활성화가 수입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
-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, 액화천연가스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의약품, 의류·동부속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, 의류 및 동 부속품과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순위 바뀜이 있는 가운데, 모두 수입이 증가
  - 원유의 수입증가폭이 전월비 31.1%로 가장 높고 이어 의류 및 동 부속품, 의약품, 액화천연가스,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순으로 수입증가폭이 큼

< 2015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5.6월			2015.7월			2015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원유	6,731	-36.7	4.3	8,823	-24.6	<b>31.1</b>	50,670	-40.0
2	액화천연가스	3,665	-37.3	16.2	3,956	-40.7	<b>7.9</b>	35,359	-22.7
3	의류·동부속품	2,271	9.5	14.4	2,833	8.7	<b>24.7</b>	18,204	6.4
4	의약품	2,347	33.8	16.5	2,676	25.4	<b>14.0</b>	15,488	18.7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534	9.3	15.4	2,650	19.9	<b>4.6</b>	17,584	7.3

자료 : 일본 재무성

- 주요 수입대상 지역·국가별로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전월보다 증가한 가운데, EU부터의 수입증가폭이 13.5%로 가장 크고, 이어 호주, 중국, ASEAN 순
  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0.9% 감소

< 2015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5.6월			2015.7월			2015.1-7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5,720	6.9	9.0	16,526	13.5	5.1	94,318	-12.0
2	ASEAN	9,966	5.2	16.3	10,413	0.7	4.5	60,654	-15.1
3	EU	6,963	6.5	5.3	7,906	13.5	13.5	40,442	-15.2
4	미국	7,237	14.9	6.1	6,939	7.5	-4.1	41,277	-4.6
5	호주	3,315	-18.2	9.7	3,613	-22.4	9.0	22,123	-25.6
8	한국	2,792	-0.8	0.3	2,766	-8.9	-0.9	16,814	-18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# 3.엔저약화 · 주가하락 · 금리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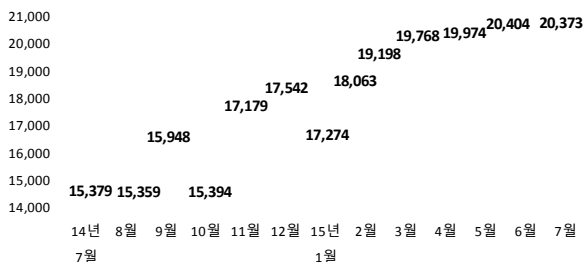
#### □ (주 가)

- ‘15.7월 평균 주가는 그리스 정세의 진정 등으로 상승했으나 그 후 반락하여 전월비 0.2% 하락한 20,373엔
- 8월 들어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감속에 대한 불안 등으로 8월 24일 기준 18,540엔까지 하락

#### □ (금 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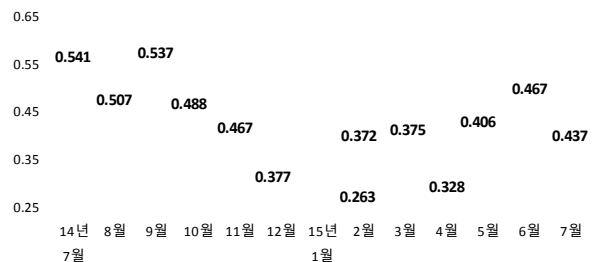
- ‘15.7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과 유럽의 장기금리 하락 영향으로 전월비 6.4% 하락한 0.44%
- 8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8월 24일 기준 0.35%까지 하락

< 닛케이주가추이(엔)>



자료 : 일본경제신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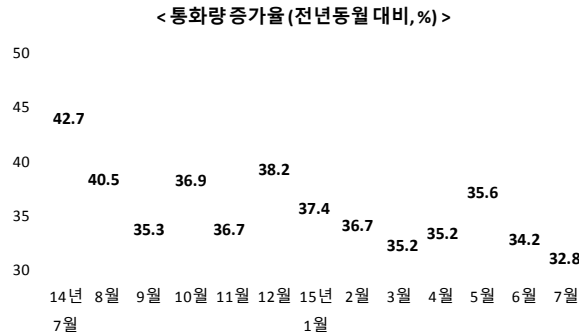
< 장기금리 추이(10년물, %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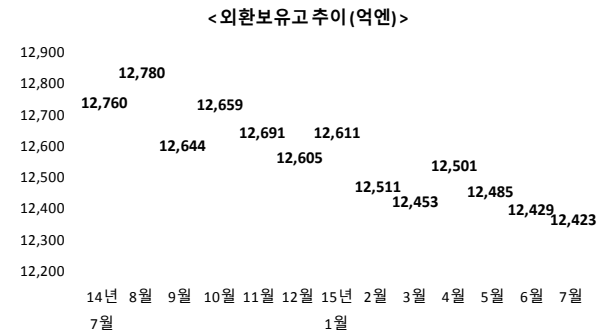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상호증권

## □ (통화량)

- ‘15.7월 본원통화(머니리베이스 기준)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2.8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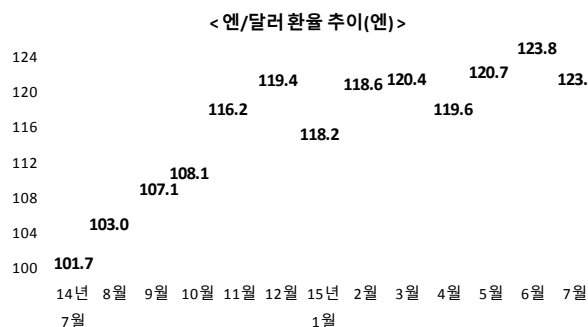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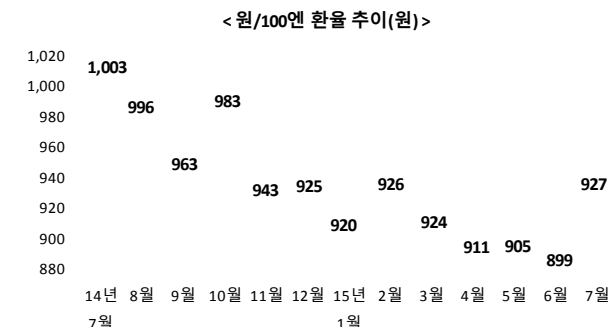
자료 : 재무성

## □ (환율)

- ‘15.7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보다 0.5% 하락한 123.2엔(엔고)
  - 8월 들어서는 세계적인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아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8월 24일 기준 120.90엔까지 엔저세가 약화
- 당분간은 미·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(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,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),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
  - 그러나 현재 시장 환율은 구매력평가(2015년 2월말 기업물가지수 기준, 달러당 약 100엔)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로의 회귀·조정 가능성이 큼
- ‘15.7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27원으로 전월의 899원에 비하여 3.1% 엔고·원저



자료 : 일본은행



자료 : 한국은행

#### 4.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

□ **(동향)**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로 3개월 만에 감소로 반전

○ ‘15년 6월 해외직접투자액은 6,223억 엔으로 전월비 70%의 큰 폭으로 감소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 %) >

		2013	2014	2015					
	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금 액		131,946	125,929	11,901	13,833	9,244	10,023	20,757	6,223
증가율	전기비	34.9	-4.6	-12.3	16.2	-33.2	8.4	107.1	-70.0
	전년동기비	34.9	-4.6	-5.6	113.3	28.2	-51.3	177.1	-11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**(지역별)** 대양주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폭 커

○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폭이 -95.6%로 가장 큼

○ 최대 투자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62.6% 감소

\* 한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

<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%)>

	2014년		2015.5월			2015.6월	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전월비	전년동월비		전월비	전년동월비
대세계	125,939	-4.6	20,757	107.1	177.1	6,223	-70.0	-11.4
아시아	37,617	-4.3	6,797	-	329.9	2,541	-62.6	-10.5
중 국	7,150	-19.3	781	-39.3	64.1	973	24.6	16.4
한 국	3,328	3.7	93	-33.6	520.0	412	343.0	104.9
북 미	46,264	1.2	2,440	69.4	22.6	-124	-	-
미 국	44,365	3.3	2,420	73.7	26.3	-167	-	-
중남미	7,710	-22.1	1,851	-21.8	421.4	867	-53.2	335.7
유 럽	26,310	-16.7	3,140	-50.2	-2.6	2,486	-20.8	55.2
대양주	5,963	1.2	6,322	857.9	-	280	-95.6	-56.7
중동	527	-	34	-65.0	-65.0	117	244.1	-41.2
아프리카	1,539	205.4	173	-30.2	-38.7	57	-67.1	-77.3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**(특징)**

○ ‘15년 1분기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이 40%, 비제조업이 60% 차지

○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매수가 가속화, 8월 20일 시점에서 매수총액이 전년동기비 77% 증가한 7조 1,685억 엔으로 연간 과거 최고였던 2012년을 상회

-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로 대형 M&A가 증가

### III. 일본의 주요 정책

#### 1. 2015년 일본의 경제재정백서

- 일본 내각부가 8월 14일, 『2015년도 연차 경제재정보고(경제재정백서)』를 발표
- 제 1장 「경기 동향과 선순환 진전」에서는, 최근 일본의 경제재정 동향을 회고하고 앞으로 전망을 제시
- 제 2장 「성장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과제」에서는,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, 한정된 노동력을 확보하고 활용해나기 위한 과제를 분석
- 제 3장 「이노베이션 시스템과 생산성 향상」에서는, 성장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의 원천으로 이노베이션 촉진에 관하여 분석

##### 1) 경기동향과 선순환 진전

- 2015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는 2013년 봄 이후 완만한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현재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
  - 그러나 백서는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비세 증세 등의 정책판단에 여지를 남겨놓음
- 「4반세기 만의 성과와 재생하는 일본경제」를 부제로 한 백서는, 기업수익의 증가가 임금상승과 고용증대로 이어져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주도로 경제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
- 실업률은 18년 만에 낮은 수준, 유효구인배율은 23년 만에 높은 수준, 고졸 취업 내정율은 23년 만에, 대졸 취업 내정율은 7년 만에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점 등을 예시,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
- 앞으로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임금인상이 개인소비의 회복에 기여하는 외에, 유가하락 등으로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

- 당면한 위험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리스 정세 등 해외경기 부진을 들고 있음
- 일본경제의 최대 과제인 디플레이션 탈출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, 다소 충격이 있어도 완만한 물가상승 상태가 지속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제시
  - 그 판단재료가 되는 소비자물가, GDP 디플레이터, 단위 노동비용 등 3가지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
- 그러나 일본경제의 수요와 잠재적인 공급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어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 등에 의한 수요부족을 해소시키는 것이 과제
- 아마리 경제재정상은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나, 아직 디플레이션마인드가 불식될 정도로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언급
- 이에 정부가 기업들의 영업실적을 늘어나 임금의 개선과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, 자동순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
- 한편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의 영향에 대해서는 증세 전 가수요 규모를 3조엔 정도로 추계
  - 이는 1997년 증세 시 2조엔에서 1조엔 상회하는 규모로서, 증세 후 개인소비를 크게 냉각시킨 요인이었다고 분석

## 2) 성장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과제

- 일본의 30-40대 여성의 노동력 비율은 낮은 편으로, 파트타임 노동자가 선진국만큼 풀타임 노동으로 전환되고 출산·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여성들이 노동에 참가하는 경우 일본의 총 노동공급은 1.5% 정도 증가
- 파트타임 기간의 장기화, 정사원의 능력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임금체계 개선, 교육·훈련 투자의 충실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시키는 것이 중요
- 일본의 노동이동 규모는 매우 적기 때문에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노동이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

- 거시적 차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노동만이 아니고 개별 산업별로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높이는 것이 효과적

### 3)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

-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의 배경에는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부진
  - 비제조업은 ICT(정보통신)자본을 활용하지 못했던 탓에 업무효율화가 늦어지고 생산성(TFP)상승율을 저하를 가져옴
- 앞으로 특히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큰 점을 고려하여 ICT 투자의 활용, 외국에 비하여 낮은 연구 개발활동 촉진, 경영인재의 육성이 중요
- 일본은 연구개발이나 특허출원 등을 중심으로 한 민관 공동의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노베이션의 효율성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음
- 이를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그 과실을 경제성장으로 연결시켜가는 경제 사회 전체를 시야에 넣은 이노베이션 시스템(제도적 틀)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
-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기업 및 업종, 산·관·학 등의 부문을 초월한 인재교류가 관건

### 4) 결론

- 백서에서 현재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라고 인식하면서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에 의한 가일층의 경기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
-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처방전으로는 여성의 활용과 이노베이션 개혁을 제시
  - 여성의 활용에 대해서는 일손부족의 해소책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제안
  - 이노베이션 개혁에 대해서는 이것이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확대 등 경제의 선순환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

## 2. 대폭 강화된 에너지절약 대책

### 1)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 배증

- 경제산업성은 2030년의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% 감축하는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, 기업과 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기로 함
  - 2016년도 예산요구액을 2,429억엔으로 2015년 당초 예산보다 2배로 증액
  -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 등도 늘려, 에너지 관련 에너지대책특별회계의 요구액이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22.5% 많은 9,757억엔
  - 일반회계와 에너지특별회계를 합한 요구액은 20.8% 증가한 1조 3,712억엔
- 경제산업성은 또 공장과 사무실의 에너지절약대책 보조금을 늘리고,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함
  - 이제까지는 공장 등 건물 전체로 에너지절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설비라도 효과가 나타나면 인정해주는 한편, 중소기업 경영자가 에너지절약 방법을 상담할 수 있는 장소도 전국으로 확대
-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에 대해서도 지원. 전력회사 등이 노후화된 수력발전소 설비를 교환하여 출력을 올리는 경우 신규로 보조금을 지급기로 함
  - 이와 함께 지열발전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양상풍력설비 실용화를 위한 연구도 지원
- 차세대화력발전설비에 대한 연구개발예산도 늘려, 땅속에 온난화가스를 저장하는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기로 함
  - 원전을 재가동한 자치체에 대한 교부금은 정지된 자치체보다도 많게 되는 한편, 원전의 폐로로 교부금이 끊기는 자치체에 대해서도 에너지구조전환이해촉진사업 비용으로 지원을 계속기로 함

## 2) 에너지절약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폐열 사용 촉진

- 경제산업성은 2016년도부터 외부공장에서 배출된 폐열을 구입토록 기업에게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
  - 2015년도 중에 에너지절약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,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에서 소비한 에너지로부터 구입한 폐열 에너지만큼 공제받게 됨
-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절약법에 의해 기업들에게 에너지사용량을 기초로 산출한 에너지절약지표의 개선노력을 요구하고 있음
  - 이제까지는 외부로부터 구입한 폐열을 냉난방 및 급탕 등에 충당하더라도 에너지사용량이 줄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에너지절약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, 새로운 제도에서는 폐열을 이용하는 만큼 지표가 개선되게 됨
  - 경제산업성은 지표가 5년 연속으로 1%씩 개선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어 기업 측으로서는 폐열을 공조 및 급탕 등에 이용하는 동기가 높아짐
  - 그러나 폐열의 매매가 과열되면 공장이 폐열을 늘려 에너지사용량이 늘어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, 경제산업성은 부차적으로 배출된 폐열에 매매를 한정하여 에너지절약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시할 방침

## 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### 1.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확대

#### □ (중 합)

- ‘15.7월 대일 무역적자는 21백만 달러 늘어난 1,799백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확대
  - 대일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, 대일수출감소폭이 이를 상회한데 따른 것임
-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.0%에서 4.6%로 저하, 대일 수입의존도도 전월의 10.7%에서 10.2%로 저하
  -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.2%에서 7.1%로 저하

< 2015년 7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달러,%) >

	2015.6월			2015.7월			2015.1-7월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대일 수출	2,234	-12.8	-4.6	2,150	-28.1	<b>-3.8</b>	15,482	-19.3
대일 수입	4,012	-8.2	14.5	3,949	-14.8	<b>-1.6</b>	27,785	-11.6
무역 수지	-1,778	-28	612	-1,799	159	<b>21</b>	-12,303	49

자료 : 한국무역통계

#### □ (대일 수출)

- ‘15.7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3.8% 감소

	대일 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5. 6월	-12.8	<b>-4.6</b>	-2.4	<b>10.3</b>	-2.9	<b>10.4</b>
2015. 7월	-28.1	<b>-3.8</b>	-3.4	<b>-0.1</b>	-3.2	<b>5.4</b>
2015.1-7월	-19.3	-	-4.9	-	-6.9	-

- 동 기간 중 총수출은 0.1% 감소에 그치고 일본의 수입도 5.4%나 증가한 점 비추어, 대일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
- '15.7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전자부품, 수송기계, 기계요소공구·금형, 금속광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출이 감소
- 산업용 전자제품의 감소폭이 -35.2%로 가장 크며, 이어 광물성연료, 정밀화학제품, 석유화학제품도 10% 이상의 비교적 큰 감소폭을 보임
-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의 증가폭이 18.4%로 가장 크며, 이어 기계요소공구·금형, 전자부품, 금속광물 순

< 2015년 7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5.6월			2015.7월			2015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
	총계	2,234	-12.8	-4.6	2,150	-28.1	<b>-3.8</b>	15,482	-19.3
1	광물성연료	294	-31.5	-23.3	243	-63.4	<b>-17.3</b>	2,099	-46.3
2	철강제품	250	-26.7	2.9	241	-30.5	<b>-3.6</b>	1,751	-28.7
3	전자부품	202	-0.5	8.0	210	8.1	<b>4.0</b>	1,367	-4.7
4	석유화학제품	147	-10.9	22.5	132	-31.7	<b>-10.2</b>	846	-13.6
5	산업용전자제품	193	15.7	-37.1	125	-51.7	<b>-35.2</b>	1,579	-4.3
6	정밀화학제품	142	11.3	19.3	122	-14.9	<b>-14.1</b>	838	-6.7
7	수송기계	103	-2.5	8.4	122	3.0	<b>18.4</b>	724	-4.9
8	기계요소공구·금형	81	-18.2	3.8	89	-23.9	<b>9.9</b>	561	-17.2
9	금속광물	82	-7.4	-17.2	84	-4.9	<b>2.4</b>	603	-2.7
10	농산물	89	-7.6	15.6	83	-14.5	<b>-6.7</b>	586	-9.3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□ (대일 수입)

○ ‘15.7월 대일 수입은 전월의 14.5% 증가에서 1.6% 감소로 반전

- 이는 총수입증가율이 5.9%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일수입의존도 저하로 이어짐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5. 6월	-8.2	<b>14.5</b>	-13.6	<b>1.8</b>
2015. 7월	-14.8	<b>-1.6</b>	-15.3	<b>5.9</b>
2015.1-7월	-11.6	-	-15.5	-

○ ‘15.7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전자부품, 정밀기계, 플라스틱제품, 산업기계,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입이 감소

- 철강제품의 감소폭이 -11.1%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용 전자제품, 수송기계, 정밀화학제품, 기초산업기계 순
- 대일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의 수입증가폭이 26.4%로 가장 큼

### < 2015년 7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위	품목명	2015.6월			2015.7월			2015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	총 계	4,012	-8.2	14.5	3,949	-14.8	<b>-1.6</b>	27,785	-11.6
1	전자부품	469	-3.7	8.8	515	0.2	<b>9.8</b>	3,481	0.7
2	철강제품	522	-22.2	18.9	464	-38.9	<b>-11.1</b>	3,568	-28.6
3	석유화학제품	418	-8.0	-8.7	431	-25.3	<b>3.1</b>	3,016	-13.0
4	정밀화학제품	318	-10.4	21.4	313	-18.0	<b>-1.6</b>	2,244	-12.6
5	기초산업기계	300	6.0	24.5	298	8.7	<b>-0.7</b>	1,867	-9.5
6	정밀기계	193	-0.8	23.7	244	67.8	<b>26.4</b>	1,734	17.9
7	수송기계	220	8.9	4.3	212	-2.7	<b>-3.6</b>	1,475	1.7
8	산업용전자제품	231	-17.9	24.9	212	-3.3	<b>-8.2</b>	1,529	-12.0
7	플라스틱제품	193	-17.6	3.8	198	-22.2	<b>2.6</b>	1,389	-17.9
9	산업기계	188	-10.3	19.0	194	-22.4	<b>3.2</b>	1,235	-13.2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2. 일본인 직접투자 급증 반전

### □ (동 향) ‘15.2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대폭 증가로 반전

- ‘15.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684백만 달러로 전기비 136.7% 증가
  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49.5%를 크게 상회
  - 건수는 전기비 0.2% 감소
  - 전분기 급감에 따른 반작용과 건당 투자규모 확대의 영향도 증가 반전에 기여
- ‘15.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973백만 달러로 전기비 27.3% 감소
  - 건수는 2.9% 감소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(신고기준,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3년		2014		2014.4분기		2015년.1분기		2015.2분기		2015.1-2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447 (-17.7)	2,690 (-40.8)	352 (21.3)	2,488 (-7.5)	103 (45.1)	850 (73.8)	85 (-17.5)	289 (-66.0)	84 (-0.2)	684 (136.7)	169 (-2.9)	973 (-27.3)
전체 외국인투자	2,607 (-9.1)	14,548 (-10.7)	2,463 (-5.6)	19,003 (30.6)	746 (32.5)	4,185 (-6.7)	558 (-25.2)	3,555 (-15.1)	742 (33.0)	5,316 (49.5)	1,300 (-0.7)	8,871 (2.3)

주 : ( 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국인직접투자통계

### □ (한·일 기업간 협력 사례)

- 일본의 금속표면처리 기업인 파커라이징이 2019년까지 모두 50억 원(외국인직접투자 500만 달러)을 투자해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1만5천㎡의 부지에 방청유 및 세정제 생산 공장을 설립(2015.8.11. 아시아경제)
  - 파커라이징의 투자로 앞으로 5년 동안 1천750억 원의 매출과 직접고용 70명, 생산유발 2천억 원, 부가가치 유발 3천억 원, 500억 원의 수출 및 1천75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 예상

### □ (시사점)

-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에 대한 예의주시와 함께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
  -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

## V. 참고 자료

### 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(2015.7월~2015.8월)

#### □ 국내 기관

- 『최근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변화와 과제』 한국경제연구원, 2015년 8월25일  
[http://www.keri.org/web/www/issue\\_02](http://www.keri.org/web/www/issue_02)
- 『[동향분석]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(2015.8월)』 한국은행, 2015년 8월7일  
<http://www.bok.or.kr/contents/total/ko/boardView.action?boardBean.brdid=118871&boardBean.menuid=2229&boardBean.rnum=1&menuNaviId=2229&boardBean.cPage=1&boardBean.categorycd=0>
- 『일본과 중국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』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, 2015년 8월 6일  
<http://keri.koreaexim.go.kr/>
- 『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』 현대경제연구원, 2015년 8월3일  
<http://www.hri.co.kr/board/reportList.asp?firstDepth=1&secondDepth=1>
- 『일본의 로봇 이노베이션 전략』 LG경제연구원, 2015년 7월31일  
[http://www.lgeri.com/publication/report/contents.asp?pyear=2015&ctype=g&grouping\\_seq=01040200\\_498](http://www.lgeri.com/publication/report/contents.asp?pyear=2015&ctype=g&grouping_seq=01040200_498)
- 『韓日 제3국 상생협력 진출전략 -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-』 KOTRA, 2015년 7월31일  
[http://www.globalwindow.org/gw/publishdata/GWPDRE010M.html?BBS\\_ID=30&MENU\\_CD=M10028&UPPER\\_MENU\\_CD=M10007&MENU\\_STEP=2&ARTICLE\\_SE=OM#nolink](http://www.globalwindow.org/gw/publishdata/GWPDRE010M.html?BBS_ID=30&MENU_CD=M10028&UPPER_MENU_CD=M10007&MENU_STEP=2&ARTICLE_SE=OM#nolink)

## □ 일본 기관

- 『2015년도 경제재정백서』 일본 내각부, 2015년 8월18일  
[http://www5.cao.go.jp/j-j/wp/wp-je15/index\\_pdf.html](http://www5.cao.go.jp/j-j/wp/wp-je15/index_pdf.html)
- 『연구개발세제의 이용상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조사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2015년 8월18일  
[http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2015fy/000654.pdf](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5fy/000654.pdf)
- 『엔저와 수출수량에 관한 고찰』 일본 재무성, 2015년 8월14일  
[http://www.mof.go.jp/public\\_relations/finance/201508f.pdf](http://www.mof.go.jp/public_relations/finance/201508f.pdf)
- 『기업활동과 법인과세에 관한 조사보고서』, 2015년 8월12일  
[http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2015fy/000606.pdf](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5fy/000606.pdf)
- 『아시아의 성장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수출전략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2015년 8월8일  
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opinion/business/pdf/business150807.pdf>
- 『메가FTA전략의 성과를 점치는 TPP 합의시기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2015년 8월8일  
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opinion/eyes/pdf/eyes150807.pdf>
- 『일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낮은가 : 품질대비 낮은 가격설정』 일본종합연구소, 2015년 8월7일  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esearchfocus/pdf/8331.pdf>
- 『일본의 넛치톱 기업에 관한 거시적 개관』 일본 참의원, 2015년 8월5일  
[http://www.sangiin.go.jp/japanese/annai/chousa/keizai\\_prism/backnumber/h27pdf/201514203.pdf](http://www.sangiin.go.jp/japanese/annai/chousa/keizai_prism/backnumber/h27pdf/201514203.pdf)
- 『2030년의 일본 : 일본기업이 직면한 구조변화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2015년 8월4일  
<http://www.nri.com/~media/PDF/jp/opinion/teiki/chitekishisan/cs201506/cs20150607.pdf>
- 『엔저에 따른 제조업의 국내회귀 가능성』 일본경제연구소, 2015년 8월4일  
[http://www.jeri.or.jp/membership/pdf/research/research\\_1508\\_02.pdf](http://www.jeri.or.jp/membership/pdf/research/research_1508_02.pdf)
- 『진출거점 정비, 해외인프라시장 획득사업』 경제산업성, 2015년 8월4일  
[http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2015fy/000564.pdf](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5fy/000564.pdf)

## 2. 주요 경제 일정

### <8월 실적>

일자	주요내용
4	•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소위원회(경산성)
5	• 日-ASEAN 외무장관회의(말레이시아)
6	•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금융정책결정회의(6~7일)
	• 6월 경기동향지수 발표(내각부)
7	• 구로다 일본은행총재 기자회견
10	• 경제재정자문회의 전문조사회(내각부)
	• '15년 상반기 국제수지 발표(재무성)
14	• 아베총리 전후 70년 담화 발표
	• 센다이원전 재가동(가고시마현): 1년 11개월 만에 원전 제로 종료
16	•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(JAXA)의 무인보급기 '고우노토리' 5호기를 탑재한 로켓 'H2B' 발사(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)
17	• 4~6월 GDP 속보 발표(내각부)
	• 4~6월 GDP 속보 발표(내각부)
19	• 산업구조심의회 총회(경산성)
	• 7월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
	• 7월 방일외국인객수 발표(일본정부관광국) : 7월 최고 수치 기록(192만 명), 1~7월 누계 1,100만 명 돌파
21	• 6월 근로통계확정치 발표(후생노동성)
24	• RECP 각료회의(말레이시아)
25	• 간사이 경제동우회 방한
26	• 8월 월례경제동향보고(내각부)
27	• 한·일(호쿠리쿠)경제교류회의(27~28,울산)
28	• 7월 소비자물가지수, 완전실업율, 유효구인배율 등 발표

### <9월 예정>

일자	주요내용
3	• 日中 정상회담 (중국, 베이징)
9	• APEC 재무장관회의(9~11일, 필리핀 세브)
11	• 한일산업기술페어 2015(COEX)
12	•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(12~13일, 필리핀 세브)
16	• LNG산소회의(경산성, 도쿄)
19	• 한일축제한마당 2015 in Seoul(19~20일)
21	•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(21~25일, 필리핀 일로일로)
26	• 일한교류축제 2015 in Tokyo(26~27일)